

믿는 자의 일생

성경말씀: 시31:1-24

도입

인생은 승리와 실패의 연속이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의 반복, 장차 올 도시와 현실은 다르다. 시편 31편: 다윗의 삶에서 인생의 여러 모습을 보여 준다. 특히 믿는 자의 삶을 보여 준다. 사울 시대,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 밋세바 사건, 압살롬 시대, 곤경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5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 중의 하나이다. 어느 면에서 메시아 시편 '믿는 자의 일생'

구원과 안전의 원천(1-4)

폴리앗을 죽이고 왕의 사위가 되었으나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함.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으나 오히려 벼룩과 같이 개 같이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됨.
삼상 23:1-13, 그일라 이야기, 유대 평야의 요새, 골짜기 요새, 천혜의 도시
블레세 사람들의 공격, 주님의 인도, 그일라를 구해냄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과 공모하여 그를 사울에게 넘겨주고자 함. 모두 급하게 도시에서 나가 다시 여기저기로 도망다님(13절).
다윗은 이제야말로 사울로부터 벗어나 강한 요새에서 평안히 안식하리라 생각했으나 실망하게 되었다. 1-4절 읽고 그의 심정을 헤아린다. 구원과 안전은 사람이나 사람의 도시에서 오지 않는다. ★★★

믿음의 사람(5-8)

사울이 죽고 그는 이제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다. 7년 동안,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33년
헤브론: 브엘세바와 예루살렘의 중간 위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호수아, 갈렙의 도시

1. 그는 구속받은 사람이다(5). 구속(救贖), redemption, 남의 것이 된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속받았다. 그런데 그것은 값을 치르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었다. 다윗이 나는 구속받은 사람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였음을 말한다.
2. 그는 간사한 꾀나 속임수나 자기 힘으로 왕이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되었다(5절).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었다. '내 영을 맡기나이다.' ★★★
하나님이 이미 전에 그에게 왕이 될 것을 말했다. 그러므로 진리의 그 하나님이 그것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서는 특히 내어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주신다. 벧전 5:5-6

3.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6).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관심을 두는 자들이 많다.
사람의 혼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것들
하나님의 사람은 의로워야 한다.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야 한다. 특히 교회의 치리자들은 의로워야 한다. 목사나 집사가 판단에서 의롭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된다. 교회에서 공의를 먼저 집행해야 한다.
4. 그는 기쁜 사람이다(7-8).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늘 생각해 주시는 것, 그리고 이기에 해 주신다. 사람들이 갖은 꾀로 우리를 사방에서 몰아붙여도 하나님이 넓은 데 세워 주신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에워싸여도 싸이지 않는다. 고후4:8-11, 16
주님의 믿음으로 살면 고통이 온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신다. ★★★

고통과 수치(9-13)

그 뒤에 밋세바와 우리야 사건이 터진다. 살인, 간음, 음행의 아들의 죽음
부드러운 양심의 소유자 다윗은 이런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웠다. 하나님의 징계가 엄중하였다. 어떤 시편들을 보면 그가 나병 환자가 된 것으로도 보인다. 이 기간은 진저리가 나는 기간이다.
1. 죄의 참상(9-10), 죄는 고통과 수치를 가져온다. 많은 경우 죄는 건강, 재산, 명예, 행복을 앗아간다. 기쁨, 행복, 스릴, 자유를 줄 것 같은데 이것은 잠시 잠깐이다. 죄는 반드시 사람을 죽인다.
a. 다윗의 몸과 혼이 곤고하다(9).
b. 그 고통이 지속된다(10절 전반부): 시편 8, 23을 하나님께 노래하던 모습, 폴리앗을 죽이던 모습
c. 그 고통이 뼈 속까지 파고든다(10절 후반부).

2. 고통의 원인(11-13); 심각한 죄

나단 대언자의 책망, 그 외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그의 심경을 기록하고 있다.

a. 버림받은 사람(11): 나병 환자의 모습, 사람들에게 격리되어 있다. 단 한 번의 죄가 이런 파멸을 가져온다.

b. 잊힌 사람(12): 더 이상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있다.

c. 두려움으로 떠는 사람(13), 중상모략, 암살 소문 등, 원래 감은한 남자와 여자는 죽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도저히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 회개해야 한다. ★★★

간구와 기도(14-18)

그 뒤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다. 승리의 기도

1. 주여, 당신은 내 하나님입니다(14). 주(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당신은 내 하나님입니다. ★★★

2. 내 때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15):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

성경 번역, 교회: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는다. 압살롬 반역 때에 다윗의 고백

삼하15:26

3.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16): 행6-7장의 스테반이 생각한다(행6:15, 천사의 얼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바울이 생각한다.

안전과 화평(19-22)

어려운 시절이 가고 안전이 보장된다.

1. 하나님의 선하심(19), 롬8:28,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보물처럼 쌓아두셨다.

2. 하나님의 보호(20), 혀의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혀의 말다툼: 살면서 발생한다, 구분하는 지혜(잠26:4,5), 많은 경우 주님께 맡기는 것이 상책이다.
지난 1년 반의 성경 번역 이야기

교회 하면서 이런 저런 소리를 듣는다: 잘못된 것은 고친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긴다.

3. 하나님의 은혜(21-22): 놀랍게 은혜를 베푸신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고전15:10). ★★★

성도들을 향한 권면(23-24)

1. 하나님을 사랑하라(23).

신실한 자는 보존하시고 교만한 자는 벌로 갚으신다. ★★★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가족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믿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는가?

2. 항상 주님께 소망을 두라(24).

어려움은 항상 오고 간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셨다. 그런데 그분은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
이 땅은 없어진다.

앞으로 100년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그때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

결론

이것이 사이클로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온다.

시31을 통해 은혜를 받아 은혜롭게 살자.